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서

국가과학원을 현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국가과학원을 현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국가과학원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과 백두산3대장군명제비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국가과학원혁명사적관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장시간에 걸쳐 111호제작소와 정보과학기술연구소, 과학전시관을 돌아보시면서 과학연구사업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충정의 마음을 안고 지혜와 열정을 다바

침으로써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달성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과학기술은 강성국가건설을 추동하는 원동력이라고 하시면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과학연구사업을 더욱 높은 단계으로 끌어올리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력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국가과학원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인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지난해 은하과학자거리를 일떠세운것처럼 당에서 국가과학원이 자리잡고있는 은정과학지구에 올해 당창건기념일까지 현대적인 과학자거리를 일떠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수령님께서 평성시를 수도 평양의 위성도시라고 하시였는데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생활하게 된다는 의미도 담아 새로 일떠세우는 과학자거리의 이름을 《위성과학자거리》로 명명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한가지라도 더

안겨주시기 위해 마음쓰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설명절이 멀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물고기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에게는 사회주의조국의 품, 어머니당의 품이 있다고 하시면서 높은 이상과 꿈을 안고 보다 큰 과학기술성공로 부강조국건설위업수행에 적극 기여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고 국가과학원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날 국가과학원에 대한 현지도를 마친신길로 과학자휴양소가 일떠서게 될 연풍호

를 찾으시였다.

지난해 몸소 배를 타고 풍치수려한 연풍호기슭에 휴양소자리를 잡아주신데 이어 그 위치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시기 위해 현지에 이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불수록 경치가 좋다고, 명당자리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풍호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다고, 이곳에 세상에 다시 없는 과학자휴양소를 지어주어 과학자, 기술자들이 마음껏 휴식할수 있게 해주라고 하시면서 설계와 자재보장, 건설력량원성에 이르기까지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몸소 풀어주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서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시고

조선인민군군악단의 연주회를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는 군부대장병들은 새해 정초부터 자기들이 지켜선 초소들을 거듬 찾아주시며 한없는 믿음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다함없는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후방사업이자 사회주의수호전이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군인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 지혜와 열정, 헌신과 노력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군부대장병들을 고무격려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인생활을 향

상시키는것이 올해 인민군대군사사업의 중심고리라고 하시면서 2014년을 인민군대후방사업에서 변이 나는 해로 만들며 사회주의수호전에서 패승을 안아오기 위해 군부대를 찾아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에서 올해에 콩농사, 수산, 축산의 3대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인생활개선에서 이곳 군부대가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군부대가 군인생활문제를 푸는데서 선봉대가 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인생활향상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고 올해말에 조선인민군 후방일군대회를 조직하자고 하시면서 후방일군들은 군인생활개선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을 안고 대회장에 땀땀이 들어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군부

대 전자도서관, 도서관을 돌아보시고 과학기술성과자료들도 주의깊게 보아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날 군인회관에서 군부대에출신전대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부대에출신전대원들이 당정책을 민감하게 반영한 작품들을 가지고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고 공연활동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군악단의 연주회를 지도하시였다.

연주회에서는 취주악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조선인민군가》, 《조국보위의 노래》, 《해안포병의 노래》, 《7.27행진곡》, 《하늘의 방패 우리가 되리》, 《조국의 바다지켜 영생하리라》, 《조국찬가》, 《승리의 열병식》, 《혁명무력은 원수님 령도만 받든다》, 금관을 위한 취주악 《승리자들》, 클라리네

트4중주 《보람찬 병사시절》, 외국곡들인 《아무르강의 물결》, 《〈울란〉행진곡》들이 연주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연성과를 축하하여 출연자들에게 손을 저어답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군악연주회를 진행한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고 이번 연주회가 새해에 들어와 자신께 큰 힘을 주었다고 하시면서 조선인민군군악단 창작가들과 연주가들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주회의 곡목선정과 편곡을 아주 잘했다고 하시면서 특히 섬세한 예술적형상과 풍부한 울림으로 김정일에국주의의 송고한 사상감정을 감명깊게 구가한 취주악 《조국찬가》를 잘 형상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상예술성이 완벽하고 전투적기백이 차넘치는 공연을 진행한 조선인민군군악단 창작가, 연주가들에게 감사를 주시고 군악단의 예술

창조와 연주활동에 필요한 악기들과 문전기체들을 보내주시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에서는 전투적기백이 차넘치는 군악을 더 높이 올려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 원수에 대한 불타는 증오와 멸적의 투지를 안겨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식의 군악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군악단 창작가, 연주가들이 앞으로 조선로동당에서 맡겨준 영예로운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창조, 연주활동을 보다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벌림으로써 조선인민군군악단을 세계적인 군악단으로 더욱 발전시키며 우리 군대와 인민을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대전의 최후승리를 향한 보람찬 총진군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우리민족끼리의단합된힘으로북남관계개선의활로를열어나가자

남조선당국에 보내는 중대제안

쓰라린 미국의 민족분열사에 21세기 14번째의 년풍이 새겨지고있다.

해와 달이 바뀔수록 깊어만지는 겨레의 가장 큰 아픔은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국조량단과 민족분열의 엄연한 현실이다.

여기에 끝장을 내려는 단호한 결심을 품고서 오늘날의 첫 려병이 떠오르는 뜻깊은 시각 내외에 천명하진 절세의 애국자의 애국, 애민의 뜨거운 호소와 조국통일과 평화변명을 앞당겨 안아오시려는 철의 의지는 삼천리강토와 온 민족은 물론 세계의 마음들을 뜨겁게 달구고있다.

그러나 유독 남조선의 현 집권자들만이 유전으로 체질화된 대결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채 새해벽두부터 상서롭지 못하게 높아내고있다.

마치 엄중하게 번져지고있는 북남관계의 현 대결국면이 우리대문인것처럼 여론을 조작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남의 집안일을 놓고 함부로 꺼들며 그 무슨 《금남사태》의 허황한 꿈을 꾸다 못해 잊지도 않는 《도발》과 《위협》에 대하여 꾸며대면서 정세를 고의적으로 긴장시키고있다.

지어 세기와 년대를 넘으며 신물이 나게 써온 상투적인 수법 그대로 《년례적》이며 《방어적》이라는 구실밑

에 해마다 벌려온 침략적인 《키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까지 기간을 앞당겨 2월말부터 강행하겠다고 떠들어대고있다.

이 전쟁연습체제안에서 계획되어있는 《쌍룡》상륙작전연습만 하여도 평양타격을 노리고 최대규모로 벌여지게 된다고 한다.

문제의 위험성은 이러한 군사적움직임이 미제침략군의 술한 땅크, 장갑차집단과 비행대편대를 비롯한 새로운 해, 공군력량이 남조선과 그 주변 현지에 은밀히 전개되고있는 상태에 벌여지고있다는데 있다.

조성된 사태의 엄중성에 대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공화국의 정부, 정당, 단체들의 위임에 따라 남조선당국에 다음과 같은 원칙적인 문제들을 제안한다.

1.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할데 대한 뜨거운 호소에 화답하여 실천적인 조치부터 취할것을 제안한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변함없는 립장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오는 1월 30일부터 설명절을 계기로 서로를 자극하고 비방중상하는 모든 행위부터 전면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지는것을

남조선당국에 정식으로 제의한다.

올해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북남사이에 호상 비방과 모든 형태의 심리전을 중지하기로 《6.4합의》를 이룩한 1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민족앞에 서약한 이 합의를 존중한다면 우리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못할 아무런 이유도 없을것이다.

진정으로 북남관계개선을 바란다면 당국자들자신부터 입진사를 잘하고 언론매체들을 관계개선의 분위기조성으로 이끌어 조선반도전역에 화해와 단합의 열풍이 일게 하여야 한다.

이제는 백해무익한 비방중상과 반목질시의 악순환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민족끼리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는 겨레의 목소리에 더이상 귀를 막아서는 안될것이다.

2.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할데 대한 력사적인 호소에 화답하여 상대방에 대한 모든 군사적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것을 제안한다.

사소한 우발적인 충돌도 그 즉시 전면전쟁으로 번져질수 있는것이 오늘

의 조선반도현실이다.

이제 이 땅에서 터지는 전쟁은 대국

들에게는 어부지리를 주게 되고 우리 겨레에게는 민족의 공멸을 가져다주는 상상밖의 재난으로 될것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겨누고 벌리는 모든 군사적인 적대행위들을 무조건 즉시 중지할것을 다시금 제의한다.

당면하여 남조선당국은 《년례적》이며 《방어적》이라는 미명하에 2월 말부터 강행하려는 《키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부터 중단하는 정책적결단을 내려야 할것이다.

미국과의 《합동》과 《협동》이 그처럼 버릴수 없는 소중한것이라면 그것을 조선반도의 령도와 령해, 령공을 멀리 벗어난 한적한 곳이나 미국에 건너가 벌려놓으라는것이 우리의 립장이다.

우리에 대하여 말한다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외세를 끌어들이 민족의 안전과 평화보장에 저해가 되는 군사적행동을 벌리는 일이 없을것이다.

우리는 특히 총부리를 맞대고있는 서해 5개섬 열점지역을 포함하여 지

상,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중지할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여 제안한다.

이 제안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는 실천적인 행동을 먼저 보여주게 될것이다.

3. 이 땅에 초래할 핵재난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도 호상 취해나갈것을 제안한다.

조선반도비핵화는 민족공동의 목표이다.

따라서 조선반도비핵화를 실현하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변함없는 의지이다.

우리가 보유한 핵무력과 병진로선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 민족모두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과 공갈을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물론 세계의 비핵화까지 내다본 민족공동의 보검이며 가장 정당한 자위적인 선택이다.

우리 핵무력은 철두철미 미국의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지 결코 동족을 공갈하고 해지기 위한 수단은 아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남조선당국이 더이상 미국의 위협천만한 핵타격수단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끌어들이는 무모한 행위에 매달리지 말데 대하여 정중히 제안한다.

동족을 해치는 외세의 핵은 용인하고 온 겨레를 지키는 동족의 핵은 부인하는 이중적행태와 단호히 결별하여야 한다는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중대제안에는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서 나라의 자주통일과 평화변명을 앞당겨오려는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가 그대로 담겨져있다.

이 중대제안이 실현되면 홀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하여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크고작은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리게 될것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자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원칙적인 중대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해나오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주제 103 (2014)년 1월 16일